

4/9(토) 왕상 15-16장 눈물로 되짚어 읽는 역사

열왕기서의 결말은 남북왕국의 멸망입니다(왕하17장, 25장).

북 왕국은 앗시리아에, 남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.

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, <실패>의 자리에서

지나온 역사를 되짚어 읽어왔습니다(신4:25-31 참고).

신명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들, 순종과 불순종, 복과 저주,

여호수아 - 사사기(룻) - 사무엘 - 열왕기를 읽고 반추하며(신명기 역사서)

<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! >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.

왕들(왕국)의 행적과 과오를 가감 없이 보았습니다.

여로보암, 바아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자들입니다(11:37-38,16:2).

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가문 전체가 진멸아래 놓였습니다(14:10,16:3).

시므리 왕은 즉위 7일 만에 죽음으로 폐위됩니다(16:15,19).

구체적인 통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,

삶의 궤적들이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음을 아셨습니다.

하나님은 불순종에 경종을 울리며 적신호를 보내셨습니다.

선지자들을 통해 뜻을 전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.

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렸습니다.

망국과 포로생활을 경험한 후에야 <듣는 마음>으로 섰습니다.

이스라엘이 어떤 심정으로 열왕기서를 읽었을까요?

왕과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,

하나님의 싸인을 무시하고 기회를 박탈 때마다 탄식했을 것입니다.

<그 때 돌이켰더라면! > 후회하고 다시금 옷깃을 여몄을 것입니다.

오늘 본문을 통독하며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서기 원합니다.

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?

① 나의 영적 상태, 삶의 궤적들은 어느 길에 서 있었습니까?

② 하나님의 적신호와 기회들을 무시하여 눈물로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왕상 15-16장